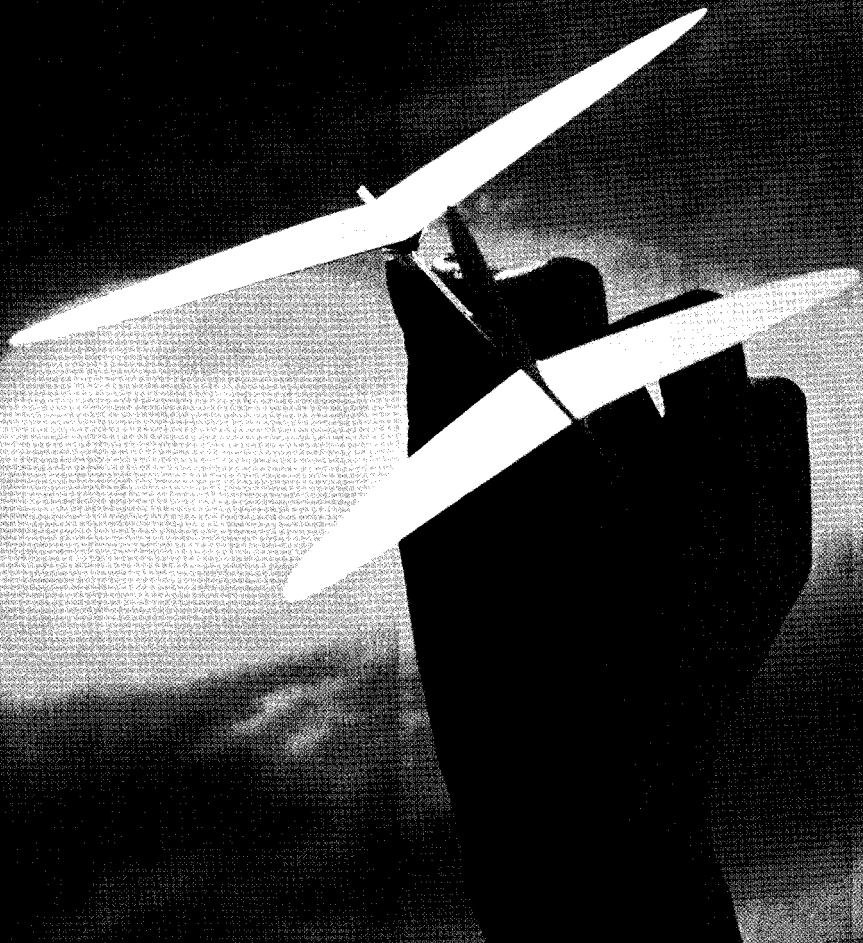


# 비행기로 치료받는 감염인이 무엇도 없이 성접촉을 하는 것은 안전한가?

글 최준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얼마 전 'Swiss federal commission for HIV/AIDS' 라는 기관에서 스위스 HIV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치료제를 복용하여 혈장 바이러스 농도가 40copies/mL 이하로 억제되어 있는 HIV 감염인은 성접촉을 통해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의 근거가 되는 여러 연구가 있었다. 먼저, 2002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우간다에서 415쌍의 HIV 감염인/비감염인 커플을 30개월 간 관찰하였는데 혈장 바이러스 농도는 성접촉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바이러스 농도가 높을수록 전파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바이러스 농도가 낮을수록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다. 특히, 바이러스 농도가 400copies/mL 이하로 억제되어 있었던 51명 감염인의 파트너 중에서는 HIV가 전파된 경우가 없었다.

다음으로 2005년 'Journal of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s'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스페인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393쌍의 커플을 단면 조사하였는데, 치료받고 있는 66쌍의 커플에서는 성행위를 통한 전파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보면 스위스 HIV 전문가들의 의견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연구자들이 최근 'Lancet'이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를 살펴보면, 위의 의견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스트리아 연구자들은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하여 치료를 통해 바이러스가 억제된 감염인들이 콘돔 없이 성접촉을 하게 되었을 때 HIV 감염의 발생이 증가하게

될 것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수학 모델은 자세히 소개하기 어렵다. 결과를 살펴보면, 10000쌍의 HIV 감염인/비감염인 커플이 콘돔 없이 10년간 성접촉을 한다면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전파는 215쌍,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전파는 415쌍, 남성에서 남성으로의 전파는 3524쌍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콘돔을 사용하는 기증에 비해 약 4배 이상 발생률이 높은 것이다.

오스트리아 연구자들은 '성공적인 치료를 통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은 HIV 감염의 성전파를 매우 낮추지만 0%로 낮추지는 않는다'고 결론 지었고, 특히 남성-남성 간의 전파 위험은 상당히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HIV 감염의 전파 위험에는 상당히 여러 요소가 관여

## 성공적인 치료를 통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은 HIV 감염의 성전파를 매우 낮추지만 0%로 낮추지는 않는다

한다. 위에서 강조한 바이러스 농도 외에도, 동반된 질병, 성행위 방법, 포경 수술의 여부, 성별, 생식기 내의 면역학적 환경, 혈장 내의 면역학적 환경 등의 여러 요소가 HIV 전파의 위험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항바이러스 치료가 성접촉을 통한 HIV 전파의 위험을 0%로 낮출 수 있는지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연구 주제이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스위스에서 발표된 주장을 증명된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위험하다.

HIV 전파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금욕 외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콘돔의 사용이라는 증명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